



[운문] 다음 시를 연결해서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시오.

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
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
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
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
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
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
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
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
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
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
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
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
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
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
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
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
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
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
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

- 정호승, 「슬픔이 기쁨에게」

갈래	자유시, 서정시	성격	성찰적, 비판적, 의지적, 박애적
제재	슬픔,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삶		
주제	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 촉구		
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슬픔'을 화자로 하여 '기쁨'의 행동을 질책하는 방식을 통해 주제를 표현함. • '슬픔'과 '기쁨'이 지닌 일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, '슬픔'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여 시상을 전개함. 		

화자: 슬픔,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려는 이(긍정적 존재)
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(연민과 애정이 담긴 슬픔)
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
 대상: 기쁨,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이(부정적 존재)
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: '-겠다'의 반복 → '너'에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드러남.

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
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
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
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
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...▶ 1~6행: 이기적인 '너'에게 '슬픔'을 주려 함.
 (소외된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, 평등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)

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
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
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
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몰인정한 태도
 「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」: 무관심으로 인한 죽음
 또다시 외면받는 상황
 →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함.

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」
 최소한의 인정
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
 인정이 메마른 이기심 → 이웃의 죽음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락한 삶만을 소중히 여김.
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

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...▶ 7~13행: 무관심한 '너'에게 '기다림'을 주려 함.
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

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
 가진 자들이 누리던 기쁨 → 소외된 이들의 고통을 가중함.

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
 보리가 얼지 않도록 온도를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함.
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

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
 화합과 조화의 의지
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
 슬픔을 겪는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
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...▶ 14~19행: '너'와 함께 진정한 사랑과 화합을 이루고자 함.

• '기쁨'이 '슬픔'의 진정성을 이해할 때까지
 • 소외된 이웃의 슬픔이 극복될 때까지

이기적인 '너'에게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고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함.

•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
•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

- 정호승, 「슬픔이 기쁨에게」